

# 여권 대권주자들, 텃밭 세불리기 경쟁... 지지모임 결성 잇따라

## 정세균·이낙연·이재명 등 조직간 경쟁 치열

대선을 앞두고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 지지모임들이 광주·전남지역에서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28일 광주·전남지역 정가에 따르면 정세균과 함께 하는 포럼 '나의소원'이 다음달 4일 출범한다. '나의 소원'은 일상적 정치참여를 통해 소통과 공감의 정치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촛불민심의 개혁을 완수하며 경제회복과 포용사회 구현으로 공동체사회를 만들어간다는 취지로 결성됐다. 상임대표로 김명술 전 언론사 대표와 김용관 광주시립광주희망원장, 유재한 전남대교수, 윤오남 조선대 교수, 정영재 사)백범문화재단 상임

이사가 이름을 올렸다. 21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총리의 지지모임인 '광주·전남 우정포럼'과 '광주전남 국민시대'도 본격적인 세규함에 나서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 모임인 '신복지2030 광주 포럼'도 다음 달 8일 온라인 발기인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한다. 발기인으로는 이계호·이병훈·이

형석 의원, 광주 5개 구청장, 김동찬·김용집 광주시의회 전·현직 의장, 류한호 광주YMCA 이사장, 안성례 전남 오월어머니회 회장, 허정 대한의사협회 고문, 강정채 전 전남대총장, 박홍석 전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임원식 광주예총회장 등 1000명이 참여했다.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발기인대회에는 이낙연 전 대표가 30분여분간 강연을 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광주·전남 지역 자발적 지지모임인 서민의 벗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24일 광주에서 창립총회를 가졌다. 출범식 이후 열린 창립기념토론회에서는 임중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위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이 참여해 '기본소득과 광주'라는 주제로 토론을 했다.

이 지사 지지모임인 희망22포럼과 기본국가포럼 '개국' 등이 잇따라 출범하고 일찌감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여권의 텃밭인 광주전남지역에서 대권주자들의 세불리기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면서 "대권주자간 경쟁은 물론, 대권주자내 조직간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는 양상이다"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 무소속 이용호 의원 민주당 복당, 당 심사위 '보류'

### 심사위원들 전원 찬성하고도 차기 지도부에 공 넘겨



더불어민주당에 복당을 신청한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의 복당 여부는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민주당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지난 27일 접수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복당 안건에 대해 '보류'를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이용호 의원의 복당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 과거 수

차례 '반려' 결정을 내리며 복당을 불허했던 때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이날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는 이용호 의원의 복당에 대해 참석자 모두가 '찬성'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을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목전에 두고 현 시점에서 복당을 결정하기 보다는 차기 지도부의 판단에 맡기자는 뜻에서 '보류' 결정을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이용호의원실은 이날 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해 "오늘 복당이 바로 결정되지 못한 것은 약간 아쉬움이 남지만 내용상 알려진 심사위원들의 의견에는 감사드린다"면서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와 달리 역시나 예상했던 민주당의 현 남원임실순창지역위원회의 반대도 격렬한 상황이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기자

이용호 의원이 복당을 신청한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열린 이날 오전 민주당 중앙당 당사 앞에서는 지역위에 올라온 30여명의 당직자들이 이 의원의 복당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용호 의원은 지역에서 치렀던 수많은 선거에서 다른 정당 혹은 무소속을 지원하고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난의 정도가 도를 넘어 우리 지역의 민주당과 당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수차례 안겨줬던 당사자"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지난 4월 총선에서 호남권 국민의당 출신 무소속 후보의 복당은 절대 없을 것임을 천명한 바 있는데 이제와 약속을 뒤집는다면 당의 원칙과 신뢰를 무너뜨려 당원들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면서 이 의원 복당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기자



국민의힘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 요구 국민의원 초선의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순천시민 염원 '정원박람회 특별법' 농해수위 전체회의 상정

### 소병철 의원 직접 참석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호소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 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발의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27일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소 의원은 회의에 직접 참석해 구두로 제안설명을 하며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향후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후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국회 호소했다. 소 의원에 따르면 세계적 행사인 국

제정원박람회를 한국에서 유치하게 된 것은 2019년부터 전라남도과 순천시 시민유치단과 함께 치밀하게 계획하고 끈질기게 노력한 값진 성과다. 소 의원은 정원박람회법을 특별법으로 발의하게 된 이유를 "2033년에 A1급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되는 데 이를 유치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이 제정되면 이번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루고 2033년에 개최될 국제행사도 유치하는 교두보가 되어 대한민국 K가든

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 의원은 이번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시키기 위해 서삼석 간사를 만나 설득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쏟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병철 의원은 "이 법은 순천지역의 경제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함은 물론 영·호남 국회의원 및 다른 당 의원들도 발의에 참여해 줄 만큼 국내 정원문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법안이다. 박람회가 2년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법안 통과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윤호기자

## 주호영 "安, 당대당 통합 바라...중도실용 정강정책 제안"

### 당명 교체 질문엔 "합당에 큰 어려움 없을 것 판단"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지난 28일 오후 안철수 대표와의 회동과 관련해 "(안 대표는) 당 대당 통합을 바라고 있다. 중도실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강정책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주 권한대행은 이날 비상대책위원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당)이 전국을 다니면서 의견을 수렴했고, 아마 최종적으로는 전당원 투표 등 방법으로 (합당 여부를) 결정할 거라는 말을 들었다"며 "청년과 여성들의 정치 진출을 활발하게 하기 위한 의무할 당제 등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

었다. 우리 정강정책을 넘겨드릴 테니 충분히 반영될 걸로 보고 의견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당명 교체 여부까지 논의했다는 질문엔 "합당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는 말로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